

하나님 되어야 구원, 사람은 구원 없어

짜이 맞아하나님의 말씀

학문은 사물에 대한 실체를 아는 것이 학문이지 실체를 왜곡해서 알고 왜곡해서 말하는 것은 학문이 아닌 것이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학문이 없었다고 20년간 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종교라는 것은 진리구현이 종교이지, 진리구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건 안 변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변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죽지 않아야 진리구현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종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종교라는 것은 죄가 뭘 줄 알아야죠? 성경에는 선악과가 원죄라고 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가 죽었고 아담과 해와를 흠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쓰여 있죠? 그러나 성경 보는 방법이 이사야서 34장16절에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짜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는 여호와와의 입으로 모았음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짜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짜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뜻이요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짜이 맞아 여호와와의 말씀이지 짜이 안 맞으면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니라 뜻이죠?

그러나 이 세상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는 분명히 말하기를, 짜이 맞는 말이라야 여호와와의 말씀이지 짜이 맞지 않는 말씀은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는 분명히 말하기를, 짜이 맞는 말이라야 여호와와의 말씀이지 짜이 맞지 않는 말씀은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는 분명히 말하기를, 짜이 맞는 말이라야 여호와와의 말씀이지 짜이 맞지 않는 말씀은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는 분명히 말하기를, 짜이 맞는 말이라야 여호와와의 말씀이지 짜이 맞지 않는 말씀은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던 거죠?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온 70명의 야곱가족은 4백년 가까이 고센 땅에서 사는 동안 수백만에 가까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 안에 있는 비돔과 라암셋 지역에 국고성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성을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60만의 장정과 그 가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다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와 살게 된 지 어언 4백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야곱도 요셉도 그의 형제들도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족속, 곧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애굽 땅에 퍼져나가 고센이란 지방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날로 번성해가는 것을 보자 애굽 사람들은 두렵게 생각하고 어느새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일이라 7년 가름에 슬기롭게 정치를 한 요셉의 일도 이전 에

에덴동산을 회복할 주인공을 키우셨죠? 에덴동산 회복하는 주인공이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세상사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이사야서 4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구원하는 자가 구세주야, 구원을 하지 못하는 자가 구세주야? 구원을 받는 자가 죽어요? 죽어서 영이 천당 가요? 그게 아니죠? “죽는 것은 죄 값으로 죽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죠?

그러므로 구세주는 죄를 해결해주는 자가 구세주인 것이옵니다. 죄만 해결되면 안 죽는 거죠? “죄 값으로 죽는다.”는 것이 성경에 뚜렷이 쓰여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

이고, 욕심 자체가 죄란 말이죠? 욕심 자체가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욕심 자체가 욕심 부려야, 나라는 의식이 욕심 부려야? 그러니까 욕심의 뿌리가 나라는 의식이죠? 그러니까 뿌리도 같은 나무야, 뿌리는 다른 나무야? 같은 나무죠?

그러니까 욕심이 죄가 되니까, 나라는 의식도 죄가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쓰여 있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반대의미로 너희는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죄가 마귀종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마귀종이라는 건, 마귀새끼라는 거죠? 마귀새끼가 마귀죠?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도 가고 구원도 얻을 수 있어

그러므로 마귀라는 것이 죄이고 죄가 마귀인 고로 성경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구세주 조희성님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씀은 아담과 해와가 사람일 때에 그 선악과를 하나님일 때에 먹었다는 것이,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덴동산은 하늘나라죠? 찬송가에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인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구원이자,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죠? 이것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인

것이옵니다.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도 역시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 자체가 현재 너희가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반대의미가 있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거기까지 모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자, 사람은 구원이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 에. 아시겠어요?

순교나 부활의 진정한 의미

그러서 죄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제거해야, 죄가 되고 마귀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나라는 의식이 될 때에 하나님이 됐다 되면서 구원을 얻었다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하늘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은 종교가 없다.”하는 말이 사람이 하는 거죠? 죄가 뭘 줄도 모르고 또한 성경적인 구원론도 모르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는 ‘생명과일을 먹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또 ‘순교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면 부활도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의 몸이 다시 살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건 성경 말이지, 세상 이야기 책 말이 아니죠?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 말인 고로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영적 말씀이라니까 영적 부활을 논한 거죠?

영적 부활인 고로 나라는 의식의 영이 마귀의 영인 고로 마귀 영을 죽이면 마귀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이 나라는 의식이 될 때에, 6000년간 마귀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았다가 돼서 나라는 의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고, 또한 이것을 순교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이가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 되는 거죠?

순교자라는 것은 역시 성경 말이면서, 영적인 말씀인 고로 영적인 순교를 말하는 고로 나라는 의식의 마귀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죽어야죠? 나라는 의식이 죽어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될 때에, 순교자가 되고 부활자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의 구원론을 해석해주는 자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 주인공이 지금까지 안 왔던 거죠?

삼위일체란?

성경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었었을 때에 에덴동산이 하늘나라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영원 전 서부터 계셨다가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6000년 전에 마귀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마귀가 이제그대로 모방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순간 눈을 통하여 마귀의 영이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있었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영을 마귀가 사로잡아 마귀 속에 가둬 놓고 마귀가 주체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을 갖다가 붙였는데,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또 거기 말고 있어요? 짜이 있는 말이 있어요? 짜이 없는 말인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답이 나오죠? 또한 옛날에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또한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면 아담과 해와가 죽은 다음에 아담과 해와 같은 사람을 흠을 빚어 만들어야 흠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참말이 되는 거죠? 지금도 흠을 빚어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001년 4월 11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훈옥 기자

《5장 모세》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다

사람들은 까마득히 있었으며, 새 왕이 등극(登極)하여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등극한 애굽의 왕 투트모세 1세도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여간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그 수가 많고 강하다. 만약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늘어나서 전쟁 때 적들과 손이라도 잡아버리면 애굽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그러하여 그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 위에 감독을 두고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고된 일을 시키며 그들을 부러먹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소년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다 늙어서 힘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조금도 쉴 사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잠시라도 쉬는 사람이 있으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긴 성을 쌓는 일을 비롯하여 벉돌 굵기, 그릇 굵기, 집짓기, 밭일, 흠일 등 어렵고 고된 일만 애굽 사람의 채찍 밑에서 소나 말처럼 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천대와 학대를 해도 이스

라엘의 자손들은 날로 늘어나고 그 힘이 커가기만 했습니다.

투트모세 1세를 계승한 애굽의 왕 투트모세 2세는 새 명령을 온 나라의 히브리 산파에게 내렸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사내아이면 죽여 버리고, 여자 아이이면 그대로 목숨을 살려 주어야’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사내아이라고 죽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애굽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은 애굽의 왕 앞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아주 건강하여 우리들이 달려가기 전에 혼자서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슬기롭게 대답을 하는 산파들을 기뻐하게 생각하시고는 복을 많이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더 늘어난 것입니다. 투트모세 2세가 애굽을 치리던 지 3년째 되던 해에 또 새 명령을 온 나라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것보다 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내아이를 낳으면 그 즉시 나일 강에 던지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살려도 좋다’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2세는 상(上)애굽의 테베(Thebes)에 있는 왕궁을 비우고 몸소 하(下)애굽의 고센으로 내려와 멤피스 인

근의 카이로에 머물면서 자신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들이 제대로 제거되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때마침 한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의 집안에서 어린애를 낳았습니다. 아주 귀여운 사내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요게벳은 그녀의 조상 레위 할아버지가 107세까지 살면서 주어로 통독했던 성경 창세기서의 원전인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요게벳은 레위자파 고향 가문의 후손으로 애굽의 언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지성인이었으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사내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 버리라고 했으나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석 달 동안 남의 눈을 피

1 요게벳(Jochebed): “야훼는 영광 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레위 가문의 딸이며 고향의 누이이자 조카 야므람의 아내이며 2남(아론, 모세) 1녀(미리암)의 어머니였습니다. 야므람과 요게벳은 신앙이 독실한 부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온 가족이었습니다. 2 성경에 야곱의 셋째아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조작된 것으로, 사실은 레위는 107세에 임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110세로 임종하기 전에, 요셉보다 5살 많은 레위는 이미 음부로 내려가고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세는 분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첩의 아들에게 하셉수트 공주를 주어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투트모세 1세의 첩의 아들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으로서 어린 자식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세 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셉수트 공주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 하나를 보았으며 또 결혼한 지 10년째에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여 투트모세 2세가 되었습니다.

투트모세 2세는 애굽의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내 하셉수트 공주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그는 그의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카이로 성읍에서 그만 요절하고 맙니다. 그 해에 남편을 잃은 하셉수트 공주는 난산 끝에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이마저 태어난 지 두 달도 넘기지 못하고 열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